

1999학년도

碩士學位 請求論文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치에 대한 논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이 광 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치에 대한 논고」

指導 김영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12月 20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이 광 호

이광호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은희 Eun Hee

審査委員 김성호 Kim Seung Ho

審査委員 이영선 Lee Young Sun

審査委員 김영규 Kim Young Gyu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년 12 월

< 감사의 글 >

주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신학의 좋은 내용을 두 분 교수님으로부터 받게되었습니다. 김성봉 교수님께 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은 저의 부족함에도 늘 부모 같은 심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개혁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김영규 교수님께 감사 드림은 본 논문이 내용을 갖추기까지 격려해 주시며, 세심히 지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으로 두 분 교수님들의 좋은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계보모임(개혁주의 신학자 계보연구 모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보모임을 통하여 개혁신학의 좋은 내용을 함께 숙고하며 연구함으로 개혁주의에 대한 사고의 틀을 더욱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였던 김종인 목사님, 박진택 강도사님, 이상철 전도사님, 김지훈 전도사님, 허찬 전도사님 등 귀한 분들은 평생의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독일어반에서 함께 어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승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심열을 기울이며 독일어와 라틴어, 화란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함께 공부하였던 독일어반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누며 섬기는 양재동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마치기까지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형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누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논문을 헌정함으로 감사를 대신합니다.

Soli Deo Gloria!

# I. 서론

## 1) 문제제기와 목적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왜 강요를 통해 그 시대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며, 그 생명의 위태로움을 뒤로한 채, 친구와 동료들이 이 진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증거하는 것은 어떤 정신에서인가?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진리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서 동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일까?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칼빈이 어떻게 그 모든 사고와 생각의 표준과 규범을 세우며, 실천에 있어서 즉 저항의 수단으로서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지를 그 물음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특히 예정론은 바빙크 말에, 개혁주의 교회만의 고백도 아니요 어거스틴과 칼빈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 기독교의 교의이다(1), 예정론에 관련된 물음도 중요하게 사려되어야 됨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시대에와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1559년판)에서 예정론을 제3권 21-24장에서 다룬다고 하여, 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하나님이 누구 신가를 말할 때 예정론을 다루지 않고, 3권 -1권은 신론과 인간론을 다루고, 2권은 기독교론을 다루며-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택자들의 마음속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다루는 문제와 연계하여, 그 예정론에 대해 구원론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필립 홀트롭(Philip C. Holtrop)은 주장하기를, “예정론은 구원론 또는 성화의 결론 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룰 수 없다.”<sup>2)</sup> ... 칼빈은 기도를 논한 뒤에 송영의 분위기에서

1) “Zoo beschouwd, is de leer der praedestinatie geen belijdenis der Gereformeerde kerk alleen, geen private meening van Augustinus en Calvijn, maar een dogma der ganche Christenheid.”(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I」, Kampen: Uitgeverij Kok, 1998, p.341.) ; “칼빈의 주장은 그의 독창적 교리가 아니라, 정통적 역사적 기독교의 공동적 신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조석만편저, 「조직신학」, 서울: 도서출판 강성, 1990년, p. 82.).

2) Philip C. Holtrop,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박희석·이길상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년, p.441. ; 이러한 성향은 최근에는 강정진의 Cal-Uni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의 박사학위 논문인 「칼빈의 예정론」에서도 나타난다. “칼빈의 예정교리를 하나님에 관한 교리 쪽으로 좀더 밀접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전문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고조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선택을 논하며, 그리고 구원론에 관한 논의를 마감하는 주제 -최후 부활-를 논한다 (기독교 강요, III.25). 칼빈이 선택에 관한 장들을 그곳에 두는 이유는 성경이 선택에 관한 장들을 구원론의 문맥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결과들 -위로, 송영, 거룩, 겸손, 경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큰 소원(기독교 강요, III.23.14)-도 그러한 배치에서 나온다. 만약 선택을 구원론과 무관하게 '하나님'이란 제목 하에 추상적으로 다룬다면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한다. 또한 "그는 과거의 작정에 기초한 추상적 교리도 원치 않고 미래의 위협에 기초한 추상적 교리도 원치 않으며, 다만 현재 구원의 순간에 문을 열어 놓는 선택 교리를 원한다"<sup>3)</sup>고 말함으로써 예정과 선택을 동일시하였으며, 결국 칼빈과 루터파의 입장이 내용상으로 같은 성격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분명히 루터의 예정론과 엄격히 다르다.<sup>4)</sup> 루터파는 결국 실질적으로 예정론을 버리는 성격으로까지 발전했다.<sup>5)</sup>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의지

그의 의도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논쟁은 항상 구원론적 맥락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점이다.",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년, p. 20.

3) Ibid., pp.442~443.

4) "예정이 신론의 한 부분인가(선형적 순서), 아니면 구원론의 시작과 중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후형적 순서) 하는 것이 꼭 원칙상의 본질적 차이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개혁신학자들은 선형적 순서를 따랐고, 루터파와 알미니안, 그리고 로마 교회와 대부분의 근대 교의학자들은, 점차 후형적 순서를 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 차이는 개혁파가 사변적인 방식으로 예정을 선형적이고, 철학적이며, 결정론적 신 개념에서 이끌어내고, 다른 이들은 성경에 제시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의 존재에서 주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Ook dan echaat het verschil niet daarin, dat de Gereformeerden de praedestinatatie op speculatieve manier afleiden uit een apriorisch, wijsgeerig, deterministisch Godsbegrip en de anderen zich houden aan de openbaring Gods in Christus.). 왜냐하면 가장 열렬한 칼빈주의자도 신론과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칠 때마다 성경의 교리 외에는 아무 것도 제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차이의 참된 원인은 개혁파에게 있어서는 예정론이 단지 인간론 적이고 구원론 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히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즉, 개혁파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정의 주된 목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물론 참된 구원 신앙은 선택론의 고백의 선결요건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모든 교리의 선결요건이기도 하다. 그것이 신론이든, 삼위일체론이든, 인간론이든지를 막론하고 말이다. 만일 이 고려(consideration)가 이 문제를 결정한다면, 모든 교의가 구원론 이후에 이에 따라 나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교의학에서 우리는 진리는 신자들의 의식에 주관적으로 들어온 것인 양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계시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적 방법만이 종교적 관심으로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타당한 것이다."(Herman Bavinck,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년, p.517~518.)

5) "처음에 루터는 쾰빙글리나 칼빈과 같이 예정론을 옹호했다. 비록 재세례파에 반(反)하여 후에는 말씀과 성례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크게 강조했지만, 그는 결코 예정론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처음에는 멜랑히톤도 철저히 루터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러나 1527년 이후로 그는 점차 예정론에서 떠나,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1535과 그 이후 판의 Loci communes, 그리고 1540년의 Conf. Aug. variata).

.....

를 열어놓는 성격이 되고만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칼빈이 예정론을 구원론에 제한하여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3권 21-24장에 그 위치를 둔 것일까? 그렇게 될 경우 칼빈의 예정론이 모호하게 되며 결국 성경론과 신론의 파괴(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본 논문에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예정론의 위치를 고찰하며, 왜 칼빈이 3권 21-24장에서 예정론을 말하는지와 그 위치에 둔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실제적으로 칼빈이 교리에 있어서 예정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밝히는데 논문의 문제 제기와 목적이 있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칼빈의 예정론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에서 예정론의 위치에 대한 연구 논문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논지의 구성을 '위해서 II장에서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 이전의 예정론의 위치, III장에서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의 예정론의 위치에 대하여

---

루터에게 있던 정신은 처음부터 쾰빙글리와 칼빈에게 있던 정신과는 다른 것이었다. 루터의 예정론은 단지 인간학적 근거에 놓여 있었다. 루터는 점점 더 심사 숙고적인 예정론(speculatieve leer der praedestinatie)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숨기우신 하나님보다는 은혜를 부여하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에 집중하였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바라심(이를 그의 계시된<표현된> 뜻이라 했다)을 전면에서 내세웠다(Luther verreed daarom goe langer hoe meer de speculatieve leer der praedestinatie, de voluntas beneplaciti, den verborgen God, field zich aan de bediening van woord en sacrament, aan welke de genade gebonden is, en etelde den universeelen heilswil Gods, voluntas signi, steeds meer of den voorgrond.)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멜랑히톤의 견해가 점차 변해 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 보았으며,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변증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

.....

어떤 루터파 신학자들은(Gerlach, Hunnius, Lyser) 보편구원론자인 후버(Huber)와의 논쟁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행적 의지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셨으나, 결과적 의지로는 신앙과 구원이 예지되는 이들의 구원만을 원하셨다고 하였다. 16세기 말엽에는 예지(foresight)와 예정(foresight)의 구별이 점점 더 강조되기에 이르러서, predestination은 선택과 동일시되었고, 이는 그리스도의 공적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유기(reprobation)는 사람의 죄를 그 유일한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자연인이 은혜의 방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

그러나 루터파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항론파(the Remonstrants)가 도르트회의에서 정죄 되었을 때, 점점 더 항론파에게 이끌려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항상 루터파와 항론파를 조심스레 구별하려고 하였으나, 루터파는 자신들의 교리적 입장이 도르트회의에 의해 정죄 되었다고 주장했다.”, *ibid.*, pp. 511 ~ 513.

살펴보고, IV장에서 결론과 함께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고찰할 것이다.

## II장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 이전의 예정론의 위치에 대하여

### A.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판)에서의 예정론의 위치에 대하여

#### 1. 초판의 구조에서 예정론의 성격

##### a. 초판의 배경

1533년 11월 1 일에 Calvin이 작성한 것을 학장 니콜라스 콕(Nicholas Cop)이 읽음으로 무리를 일으켜 바울처럼 창문으로 빠져나가 오를레앙(Orleans), Tours등으로 피신생활 중 마지막 앙굴렘프(Angouleme)에 도달하여 루이 뒤 띠레(Louis du Tillet)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떤 학자는 이 집에는 도서들이 잘 구비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의 구상이 이때부터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어쨌든 거기에서 반년을 보내고 루이 뒤 띠레(Louis du Tillet)와 함께 Poitiers로 옮겨 그 사역의 열매로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한다(1534년 4월말까지). 여기에서 처음 제자 선교사들(Jean Vernon, Philip Veron, Albert Babinot)을 파견하게 되는데, Veron과 Babinot는 Toulouse와 Bordeaux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Jean Vernon만 Poitiers에 남았다가 후에 잡혀 화형된다. 그러나 칼빈은 거기에서 두 달 정도 머물다가(1534년 4월말까지) 오를레앙(Orleans)와 Paris를 지나 Noyon에 도달한다(1534년 5월 초). 다시 Noyon에서 Paris로 갔는데(1534년 6월초쯤), La Forge의 집에 머물게 된다. 여기에서도 그를 따르는 자들(Bartholomew Millon, Jean du Bourg, Peter Valetton, Le Compte, Guilio Camillo, Henry Poille)이 생기게 되는데, 그가 스트라스부르크(Strassburg)로 떠나 있는 동안, 이들이 파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 그 원인은 유명한 벽보사건이었다. 카톨릭 성례에 대한 비난의 글인데, 1534년 10월 24일에 전단을 곳곳에 붙이고 왕의 출입문에도 붙이는 바람에 왕의 진노를 사서 모두 잡아 근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개신교 운동을 미워하였던 Jean Morin의 지휘아래 한 배도자에 의해서



가리켜 지는 집마다 공포의 살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순교의 사건들을 계기로 재세례파나 소요의 사람들과 같이 잔인하게 취급되는 경건한 많은 사람들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다. 재세례파들과 싸우는 원리로서 그리스도 안에 외에 어떤 하나가 되는 연합은 없고 사랑의 띠 외에 다른 띠는 없으며, 저항하는 무기로서 성경 말씀의 기능을 강조하되, 생명의 소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 소리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있을 말씀이요 성령과 그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러나 저항의 성격에 대해서 폭군들이 죽이는 것은 육체뿐이고 영혼에 대한 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sup>6)</sup>

칼빈은 바슬(Basle)에 있는 동안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했다. 그 책은 박해를 당하는 불쌍한 신자들을 대신해서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변증서의 형태로 되었다. 사실 프랑스 왕은 그가 복음을 박해하는 것이 유럽의 개신교를 신봉하는 왕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재세례파의 신도들로 잘못 분류했다. 칼빈은 그가 쓴 시편 주석 서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sup>7)</sup>

(1) 기독교 강요 출판은 1536년 3월로 되어 있고 서문은 1536년 8월 23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서문은 1535년이 1536년으로 오기(誤記)되어 표현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sup>8)</sup>.

(2) 이 저서(opera)의 최초의 의도는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가 그것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어떤 견본(초보, 기본교리: rudimenta)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 용어 'Instituti o'는 'doctrina'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 같다<sup>9)</sup>.

그는 헌사에서 강요를 써야하는 배경과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잘 나타난다.

“나의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 그것에 의해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에 착수하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책 자체도 그것이 나의 의도였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악한 사람들의 격노가 당신의 영토에서 너무나 멀리 파급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일 내가 가르치기에 착수한 자들에게 교훈을

6) 김영규, 「기독교강요 강독 I」 (서울: 1999년), pp. 16~18.

7) Theodore Beza, 「The life of John Calvin」, 김동연역(서울: 목회자료사, 1999), p.36.

8) 김영규, op.cit., p. 23.

9) Ibid.

주요 동시에 폐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sup>10)</sup>.

이와 같이 강요는 변증서의 성격을 갖추면서 또한 교리서이며 동시에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독교 강요 출판의 특별한 성격은 근거 없이 그리고 재판석에서의 경청함이 없이 순수한 교리(sana doctrina) 때문에 대적자들의 강포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 당하는 자들을 대변하고 대적자들의 불과 칼에 대응하는 저항수단(confessio)으로서 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진리(certissima Dei veritas)로서 알아야 할 것을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곤비한 죄인들일지라도, 그들의 교리만은 세상의 모든 영광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권세 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이는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과 성부가 왕으로 세웠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사명이나 종교적인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Dei ministrum)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홀(Dei scepter)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sanctum Dei verbum)으로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치자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latrocinium)가 된다고 감히 선포하고 있다. 그들 자신들은 그들의 대적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같은 무기로 싸우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다.<sup>12)</sup>

#### b. 초판에서의 예정론

초판에서 예정론은 사도신경의 넷째 부분에 나타난다. 즉 교회론을 말할 때 선택받은 자의 전체수<sup>13)</sup>로 말하며, 그 택함 받은 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택하심을 입어(엡1:4)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도록 하셨다.”<sup>14)</sup>, 즉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

구원의 순서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양낙홍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 49, [이하 Inst(1536)라 함], p.45.

11) Ibid., p. 49, “그러나 우리의 교리는 기가 꺾임이 없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들 위에 우뚝 솟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12) Ibid., p. 24. 예를 들면, “대적자들은 주장한다. 교회의 형태는 항상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교회란 결코 그런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찬란함에서 나타나지 않고 전혀 다른 징표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것의 참된 모습은 외관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다.” 즉 실천적인 목적에서 칼빈의 교회관이 정리되고 있다.

13) Inst(1536), p. 139.

14) Ibid.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의 이 순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30). 그가 자기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실 때는 그들을 부르신다[소명]. 그러면서 자신을 보여 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로 인정하게 하신다[신앙]. 그는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의롭다 하시는데, 이 의의 옷이 그들의 완전이 되게끔 꾸미시고 또 본래 그들의 불완전을 덮어 감추는 것이다[칭의]. 그리고 이제 그들의 육체의 부패를 매일 매일 씻는 자들을 그는 성령의 축복들로써 소생시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성화]. 그리고 그의 왕국의 위엄이 모든 것 속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영화].”<sup>15)</sup>

또한 “하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 할 것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런 방법을 통해 그가 택하신 모든 사람 가운데 그의 선택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다.”<sup>16)</sup>

이와 같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소명-신앙-칭의-성화-영화의 단계가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정을 논한 바로 다음에 이러한 것을 이루는 것은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한다.

#### (1) 선택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세울 때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은 기초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고전3:11).… 그것은(기초는) “창세 전에” 우리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다(엡1:4-5)<sup>17)</sup>.

#### (2) 의지의 부패

만일 사람이 자연적 은사에 따라 판단 받는다면 머리 꼭대기로부터 발끝까지 그에게 선한 의지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 있는 칭찬들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다<sup>18)</sup>.

15) Ibid., p. 140.

16) Ibid., p. 96.

17) Ibid., pp. 104~105. ; 참조, “한줄기 거룩한 빛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하늘 아버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만 예비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Jean Calvin, 「사도레토에의 답신, 성만찬 소고」, 박건택역(서울: 바실래, 1989년), p. 47.

18) Ibid., p. 96. ; 참조, 인간의 부패성은 생의 마지막까지 온전함에 이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택자에게 있어서도 늘 그 부패성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지상의 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마땅히 품어야 할 열심을 품고 이 길을 서둘러 갈 만큼 강하고 단호한 사람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가운

### (3) 소명

“결과적으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셨던 그의 영원한 선택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 할 것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런 방법을 통해 그가 택하신 모든 사람 가운데 그의 선택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다.”<sup>19)</sup>

### (4) 신앙

(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의 모든 자신감이 완전히 꺾이고 그 대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획득하게 되며 우리의 공로를 잊고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sup>20)</sup>.

그리고 그들이 이런 회개를 몸의 감옥 속에 거하는 한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사이, 그들은 거듭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회개를 얻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들의 궁핍을 자각함으로써 모든 교만을 꺾고, 자신들을 온전히 내던져 그 무가치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때에 가서야 마침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내미시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를 맛볼 때에 그들은 편히 숨을 쉬고 위로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용서와 또 복된 구원이 자기들을 위함인줄 확신하게 된다<sup>21)</sup>.

반면에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연결고리인 이 죄용서를 결코 얻지 못한다(눅16:15, 26).

### (5) 칭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sup>22)</sup>.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와 지며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의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입으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무죄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고전1:30)<sup>23)</sup>.

---

데 대부분은 너무나 약해서 흔들리고 절뚝거리다가 결국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내디디자. 일단 시작한 여행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추구하자. 이와 같이 연약하게 한걸음 한걸음 내디디는 자는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다가 마침내는 고향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이형기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년), p. 82.

19) Ibid.

20) Ibid., pp. 100~101.

21) Ibid., p. 148.

22) Ibid., p. 326.

그래서 홀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 나타나야 하며 심판 때에 우리를 위한 보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히11:6: 롬8:34). 마치 그것이 우리의 것인 양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sup>24)</sup>.

의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의이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의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가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가되어 의롭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기만 하면 전가에 의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이렇게 간단하고 복잡스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sup>25)</sup>.

#### (6) 성화

“그(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며 악마의 권세와 사슬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우리가 이 죽을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부패한 욕망들,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왜곡되고 부패한 우리 본성이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죽어 가는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고후4:16) 새로운 생명 가운데 견게 되며(롬6:4) 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다.”<sup>26)</sup>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 주안에서 이 모든 축복들을 주시는데 그 속에는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 성령의 은혜와 선물들이 있다. 만일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sup>27)</sup>.

한마디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하늘의 보화와 성령의 선물들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sup>28)</sup>.

23) Ibid., p. 101. ; 참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인류가 버려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 하였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으며, 그의 피로써 우리들의 허물을 씻으셨으며, 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으며, 또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공적이나 가치 있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따라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Jean Calvin, 「사둘레토에의 답신, 성만찬 소고」, op.cit., p. 43.

24) Ibid., pp. 101~102.

25) Ibid., p. 120.

26) Ibid., p. 74.

27) Ibid., p. 74.

28) Ibid.

그런 다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를 통해 우리 육신의 정욕들은 날마다 더욱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성화되고 완전히 순결한 삶 속에서 주께 헌신되며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매사에 그분의 영광만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의지로 삼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육신의 더러움을 증오하는 것이다<sup>29)</sup>.

성화는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피하는 중에도 불완전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해 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신뢰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롬7:23)”<sup>30)</sup>.

일단 기초가 놓인 뒤에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이 위에 건축을 한다. 만일 교훈과 권면의 필요가 있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요일3:8-9), 또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벧전4:3),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딤후2:20-21)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sup>31)</sup>.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며(살전4:3) 우리가 불법적인 욕망을 삼가는 것이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의의 종이 되기 위함이라(롬6:18)고 그는 말했다<sup>32)</sup>.

#### (7) 영화

우리는 삶의 성결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자들이 그것에 의해 하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다(롬8:30)<sup>33)</sup>.

#### (8) 하나님의 유기에 관한 예정(섭리) - 하나님께서 유기자들 속에서 일하심

하나님께서서는 버림받은 자들, 그 행위가 정죄 받은 자들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이 죄의 조장자란 말인가? 악이 하나님께로 전가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상기 시켜야 할 것은, 한 동일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일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분간해 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sup>34)</sup>.

29) Ibid., p. 101.

30) Ibid.

31) Ibid., p. 105.

32) Ibid., p. 109.

33) Ibid., p. 111.

34) Ibid., p. 121. ; 참조, 「즈네브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앙 고백(1537)

악한 인간은 그 자신 속에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악을 생각해내고, 스스로 그것을 도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에 옮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의 행위 속에 있는 악과 죄를 그에게 다 돌려야 마땅하다. 그 사람은 의도와 의지와 행동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가동시키기도 하면서 인간의 악한 의지와 도모를 조정하신다. 행복한 결과를 주기도하고 힘을 더하기도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신다<sup>35)</sup>.

앗수르는 ... 산헤립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불리워지고 일으켜지고 추진되어, 한마디로 모두가 그의 종들이었다. 하지만 왜? 그들 자신의 스스로의 고삐 풀린 욕망에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렘27:4-8). 보라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은 동일한 한 가지 일의 공모자다! 그러나 그 동일한 일 속에 하나님의 의가 빛나고 인간의 죄악이 비추인다<sup>36)</sup>.

성경은 아주 빈번하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롬2:6-7; 마16:27; 고전3:8, 14-15; 고후5:10). ……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런 종류의 악속에 의해 우리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려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목적은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를 낮추어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는 것이다<sup>37)</sup>.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의 소용을 위한 것이든 육신을 위한 것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

」, “복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의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신적 결의의 크신 비밀 (le grand secret du conseil de Dieu)에 대해 반드시 숙고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오직 주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선택을 통해 당신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정하신 사람들 안에서만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창세 이전에 동일한 하나님의 결의에 의해 유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진리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라는 말 이외의 다른 것일 수가 없다. …… 주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의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의 준엄한 심판을 행사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인식되어지도록 놔두어야 하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그럴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 이는 우리의 영이 가지는 불완전성 (rudess)이 것처럼 거대한 명료성 (clarte)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고, 우리의 빈약함 (petitesse)이 것처럼 위대한 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 이르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들의 영이 가지는 무모함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이 말한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임위를 궁구하려 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에 의해 짓눌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Jean Calvin, 「갈뵈의 요리문답」, 한인수역(서울: 경진, 1995년), pp. 47~48.

35) Ibid.

36) Ibid.

37) Ibid., p. 110.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그분에 대해 약속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심을 의심치 아니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는 설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를 통해 죄의 용서와 성화를 얻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구원도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며 약속하시는 온갖 일들의 핵심이요 총체이다. 이것이 그의 성경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적이요, 이것이 그가 세우신 과녁이다<sup>38)</sup>.

(유기자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준다.)

그리스도 안에 분깃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 지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 지간에, 파멸과 혼란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모든 구원의 소망이 끊기게 될 것이란 말이다(요 3:18-20; 요일5:12). 우리 자신과 우리의 빈곤과 파멸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며 그의 자비를 구하라고 가르쳐 준다(렘31:18-20)<sup>39)</sup>.

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 단 한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자가 구원의 서정을 갖게되며, 그러한 구원은 가장 견고한 것이다.

## 2. 초판의 구조

초판의 구조는 전체 6장으로 되어있다.

1장 율법에 대하여(*DE LEGE*)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 강해와 칭의, 율법의 사용을 다룬다.

2장 믿음에 대하여(*DE FIDE*)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도신경 해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다룬다.

3장 기도에 대하여(*DE ORATIONE*)에서, 기도의 의미와 주기도문 해설, 기도의 실재를 다룬다.

4장 성례에 대하여(*DE SACRAMENTIS*)에서는 일반적인 성례의 의미와 세례, 성만찬과 성례의 집행을 다룬다.

5장 존재하지 않는 다섯 가지의 성례(*SCRAMENTA NON ESSE QUINQUE*

38) Ibid., p. 114.

39) Ibid., p. 74.



RELIQUA)에서 견신례와 고해, 중부성사와 성직의 계급, 혼인성사를 다룬다.

6장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그리고 정치 조직에 대하여(DE LIBERTATE CHR. POTESTATE ECCL. ET POLIT. ADMINISTRAT.)에서는 기독교인의 자유와 교회의 권능과 세상 정치에 대하여 다룬다.

이와 같이 초판의 구조에서는 예정론에 대하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리하여 본 논의와 관련해서 초판의 구조는 실제적으로 중요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회론을 다룰 때만 중요하다.

## B. 기독교 강요 1539년판, 1543/1550년판의 예정론의 위치에 대하여

### 1. 1539년판, 1543/1550년판의 예정론의 성격

칼빈은 예정론을 말하기 위해서 문서 처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 예정된 자들에게만 뿌리를 내리고...영벌에 처해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넘세”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1539년 기독교강요 제2판 이후 모든 판들에서 예정론의 출발점으로 다시 제시된다.<sup>40)</sup>

칼빈은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뒤 부찌의 요청을 받고 스트라스부르그로 갔다. 그는 거기서 오프 에콜(Haute Ecole, 고급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편, 프랑스인 피난민들의 교회를 담임했다.

칼빈은 39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기독교강요 제2판을 발행했다. 예정론은 8장에 “De Predestinatione et Providentia Dei(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자리잡았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예정론을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conseil)라고 부른다. 그것으로써 그는 자신이 각 사람에 대해 하기를 원하는 바를 결정했다. ...주님은 주신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멸망 가운데 놓아두려는 자들을 자신의 영원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결의 가운데서 한번 정해놓았다. 그는 자신이 구원으로 부른 자들을...그들의 고유한 가치(dignite)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값없는 자비로써 받아들였다... 반대로 생명의 문이 그가 정죄 가운데 넘겨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막혀있는데 그것은 정의

40) 이오갑, 칼빈의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94년, 9월, p. 291)

롭고 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면서 초판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 예정이 소명과 칭의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나. “소명은 그들의 선택의 진열장이나 증거와 같으며…마찬가지로 칭의는 또 하나의 다른 표시이자 표식이다…” 그래서 “주님은 선택한 자들을 불러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반면 영벌자들은 말씀의 인시과 그의 영의 성화로부터 떼어놓는다”. 예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즉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공적을 미리 알고 선택했다는 사상을 배격했다<sup>41)</sup>.

칼빈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엡1장)”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상속자들로 삼으려고 입양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은 그렇게 탁월하게 될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전히 그의 ‘선한 기쁨’과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서 우리들의 공적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기쁨과 은혜에 따라 우리들을 불렀다.

그것은 뒤에서 선택의 확실성 문제로 발전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우리는 선택의 확실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며, 만일 우리가 성부를 그리스도와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성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거기서 우리의 선택을 성찰해야 하고 또 우리가 틀림없이 그것을 성찰하게 될 거울과 같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의 유일한 수호자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와 구원 가운데로 받아주었는지를 의심한다면 그가 목자로서 다가와서… 자신의 양떼의 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의심을 없애준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너무나 온화하고 또 지체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편, 칼빈은 또한 값없는 은혜의 선택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성령과 선택의 관계를 밝힌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줄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다…신자들이 선택의 거룩함을 가졌다는 것과 그 거룩함으로써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대립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칼빈에 따르면 성령의 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신자들의 성화는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는 바울을 인용한다. “우리들의 선택의 총체는 이 목적을 향해야 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엡1

---

41) 뿐만 아니라 칼빈은 1552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에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피기우스(Albert Pighius, 1490~1542)의 주장을 강력히 논박하였다,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김기수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년), pp. 371~374.

장)”. 성령은 선택의 증거인 ‘소명의 본질’과도 관계된다. “소명은 말씀의 설교와 성령의 조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는 “그의 말씀”, 즉 “기록된 성서”로 썬만 가능한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명으로 시작해서 소명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자비(의 선택)가 의심스러우면 그의 선의가 오직 그에게서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sup>42)</sup>

피기우스의 주장	칼빈의 논박
<p>하나님은 자기 충족한 분이므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p> <p>하나님은 그 자신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전혀 그 자신의 영광스런 일을 고려하지 않았다.</p>	<p>“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잠16:4). 따라서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나 인류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도 부조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들은 당연히 이 같은 사실을 궁극의 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p>
<p>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의 무한성 때문이다.</p>	<p>인간의 구원의 전부 또는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p> <p>즉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제일로 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 버리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배려하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를 그의 영광의 무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p>
<p>하나님은 자신의 그 선의 본성을 고려하시사 이성적피조물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셨다.</p>	<p>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예를 그에게 돌리며 그의 인류 창조의 뜻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를 불손한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엄숙하게 냉정하게 또한 신앙의 때문지 않는 눈을 가지고 우러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p>
<p>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향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반대 일(구원에 반대되는 일)에 한한 하나님의 뜻이 의논조차도 선행되는 일은 결코 없다.</p>	<p>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게하기 위하여 이성의 빛과 본성의 공정과를 처음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치 맹아적인 것처럼 의혹과 불안 속에서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계셨다.</p>
<p>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무차별 한결같이 창조하셨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으로 보호받도록 하셨다.</p>	<p>인간은 창조된 바 최초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타락하였으므로 그 멸망의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상황에 둔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묘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스스로 초래한 파멸이 인류 및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있어서 예외 없이 겸손의 이유가 되게 하도록 작정하셨다.</p>

42) 참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본인들이 하나

문제는 밝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이나 근심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언제나 새롭게 갱신해주고 지속시켜주는 성령의 사역인 ‘견인’이 필수적이다. “신앙과 소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생의 영이…최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미래의 상속에 대한 보증이고 봉인이다.”

또한 칼빈은 야곱과 에서의 선택문제를 다루면서 선택이 사람들의 공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점을 길게 논증한 뒤 영별자들의 문제를 로마서 9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거기에 따르면 에서가 버려진 것 역시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미리 보고 한 일이다.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는 공적들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하나님은 영별자들을 간청해서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하나님은 그러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한 그게 좋다고 보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 원인을 그의 뜻 이외의 장소에서는 찾지 말라고 훈계하기 위한 것이다.”

섭리에 관하여, 칼빈은 거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반대들에 대해 답변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심판주의 정당함이라기 보다는 독재자의 잔인성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칼빈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그 뜻보다 더 깊은 곳까지 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경외하며 명상할 것”을 권한다.

또한 하나님이 정죄 가운데로 예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타락했고 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폭군의 잔인성으로써가 아니라 합리적인 공평으로써 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

---

님의 자녀들로 선택되었음을 알게 하는 징표를 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바로잡아 주시며 깨끗하게 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과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며, 그들을 더욱 더 변화시키시면서 다스려 나가시는 가운데, 중국에는 그가 그들을 자신의 왕국과 영원한 삶에 초대하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자비가 실현될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번영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Benjamin W. Farley 편역, 「칼빈의 십계명 설교」, 박희석역(서울: 성광문화사, 1991.), pp. 121~122.

## 2. 1539년판, 1545/1554년판의 구조

1539	1545/1554
1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	1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
2장 인간에 대한 지식	2장 인간에 대한 지식
3장 율법	3장 율법
4장 믿음 : 사도신경	4장 맹세론 : 수도원 제도
5장 회개 ...	5장 믿음 : 사도신경
6장 이신칭의	6장 신조 1
7장 구약/신약	7장 신조 2, 3
8장 예정과 섭리	8장 신조 4
9장 기도	9장 회개
10장 성례	10장 이신칭의
11장 세례	11장 구약/신약
12장 성만찬	12장 기독교인의 자유
13장 기독교의 자유	13장 인간의 전통
14장 교회의 권능	14장 예정과 섭리
15장 시민 정부	15장 기도
16장 거짓 성례	16장 성례
17장 기독교인의 생활	17장 세례
	18장 성만찬
	19장 거짓 성례
	20장 시민 정부론
	21장 기독교인의 생활

이와 같이 1539년판에서 비로소 예정론이 섭리론과 함께 8장에서 다루어졌고,

1545/1554년판에서는 14장에서 같은 제목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 속에서도 초판에서와 같이 예정론이 본 논의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중요치 않음을 알 수 있다.

## III장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판)의 예정론의 위치에 대하여

### A.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판)의 예정론의 성격

우리가 가지는 예정에 관한 지식이 어떤 성격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식에로의 초대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앞에 선 곤비한 인생이 오직 그 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임을 알리신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이런 예정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하여 계시 하셨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신 범위 내에서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을 탐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탐색하는 호기심을 배제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교리 이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기에 있다.

#### 1. 예정교리는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려는 것이거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 않게 어리석은 것이다.<sup>43)</sup>

## 2. 침묵할 수 없는 예정교리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여기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정에 대해서 밝힌 것을 신자들에게서 빼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서 빼앗는 악한 자로 보일 수 있으며, 알리지 않았어야 좋을 것을 공표했다고 성령을 비난하고 냉소하는 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sup>44)</sup>.

## 3. 예정의 정의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 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sup>45)</sup>.

## 4. 선택교리의 요약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

43) Inst(1559). III. 21. 2. "Sit igitur primum nobis hoc prae oculis, aliam praedestinationis notitiam appetere, quam quae verbo Dei explicatur, non minoris esse insaniae, quam si quis vel per invium incedere, vel in tenebris cernere velit."; 참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다.", Inst(1559). I. 13. 21.8.;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거룩하신 입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반적인 증거 외에 자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이다.", Inst(1559). I. 6. 1.

44) Inst(1559) III. 21.3. "Est enim scriptura schola spiritus sabcti, in qua ut nihil praetermissum est scitu et necessarium et utile, sic nihil docetur nisi quod scire conducat. Quidquid igitur de praedestinatione in scriptura proditur, cavendum est ne ad eo fideles arceamus: ne videamur aut illos maligne fraudare Dei sui beneficio, aut spiritum arguere ac suggillare, qui ea vulgarit quae utile sit ullo modo supprimi."

45) Inst(1559). III. 21. 5. "Praedestinationem vocamus aeternum Dei decretum, quo apud se constitutum babuit, quid de unoquoque homine fieri vellet. Non enim pari cinditione creantur omnes; sed aliis vita aeterna, aliis damnatio aeterna praeordinatur. Itaque, prout in alterutrum finem quisque conditus est, ita vel ad vitam vel de mortem praedestinatum dicimus."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 주실 사람들을 오래 전에 확정하셨다고 말한다.<sup>46)</sup>

하나님께서서는 공정 무휼하면서도 불가해한 판단으로, 저주에 넘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의 완성인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칭의도 선택을 나타내는 한 표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께서 소명과 칭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을 인 치시는 것과 같이,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의한 성결의 길을 끊으심으로써, 이를테면 이런 표로써 어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계시하신다.

#### 5. 버림받은 자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그의 사악함에 따른 보상을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버림을 받은 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해결 방법으로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이유를 확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는 데 대해서도 그의 뜻 이외에 아무 이유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sup>47)</sup>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강퍽하게 만드시기도 한다고 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서는 다른 원인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sup>48)</sup>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 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sup>49)</sup>

---

46) Inst(1559). III. 21. 7. "Quod ergo scriptura clare ostendit dicimus, aeterno et immutabili consilio Deum semel constituisse, quos olim semel assumere vellet in salutem, quos rursum exitio devovere."

47) Ergo si non possumus rationem assignare, cur suos misericordia dignetur, nisi quoniam ita illi pacet, neque etiam in aliis reprobandis aiud habebimus quam eius voluntatem.

48) Inst(1559). III. 22. 11. "Quum enim dicitur Deus vel indurare, vel misericordia prosequi quem voluerit, eo admonentur homines nihil causae quaerere extra eius voluntatem."

49) Inst(1559). III. 21. 1.



## 6. 예정론의 무지에 대하여

이 원칙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으며, 진정한 겸손을 얼마나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일체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꼭 알아야 할 다음의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 바울은 단정한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행위되지 못하느니라”(롬11:5-6)<sup>50</sup>.

… 문을 닫고 아무도 이 교리를 맛볼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꼭 같이 해한다. 이 교리 이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기에 있다<sup>51</sup>.

## 7.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그러해야 마땅하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어떤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은 그 먼저 있는 것에 지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라고 생각해야 한다<sup>52</sup>. … 하나님의 뜻은 아무 허물도 없을 뿐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 표준이며 모든 법의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는 생각과 또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허용된 범위를 넘으려고 할 때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 곧 죽은 인생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자가 되시리라는 경고의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시51:4)<sup>53</sup>.

50) Ibid. ; 참조, 칼빈의 데살로니가 후서 주석, “모든 선을 기뻐함을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높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는 ‘선한 뜻’(good pleasure)이라는 표현으로 만족치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요,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 아무리 사소한 성과일망정 우리 자신의 행위로 돌린다는 것은 미친 짓거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선하심에 따라서 행동하실 뿐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요점을 더욱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의 비참한 상태뿐이기 때문이다. …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 뿐 아니라 그것은 온갖 단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돌리고 있다. …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다.”, p. 489.

51) Ibid.

52) Inst(1559). III. 23. 2.

53) Ibid.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뿐, 어떤 공상적인 신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혹은 경솔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의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최대의 열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sup>54)</sup>.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건한 신자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고 경건치 못하며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이 다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다고 믿기 때문이다<sup>55)</sup>.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히 그의 부성적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는 것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부터 경건한 자들은 기쁨의 근거를 얻게 되고 불경자와 유기자들은 그 입을 다물게 된다<sup>56)</sup>.

우리는 하나님의 각 사역에서 특히 그 전체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림에서 처럼 실제로 표현됨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하나님을 알도록 초대되고 유인되며, 여기서부터 인류는 참되고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하신 사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능력의 주요한 목적, 그 가치,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숙고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 지혜, 능력을 보이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의, 선 자비를 행사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sup>57)</sup>.

피조물에게는 기이한 힘, 기이한 활동, 기이한 운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willingly decree) 않는 한 아무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58)</sup>. 실로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해 가장 운명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59)</sup>.

우리는 하나님을, 멀고 먼 영원으로부터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혜로 작정하시고 일단 작정하신 것을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로 삼는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

54) Inst(1559). I. 2. 2.

55) Ibid.

56) Inst(1559). I. 5. 8.

57) Inst(1559). I. 5. 10.

58) Inst(1559). I. 16. 3.

59) Inst(1559). I. 16. 6.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sup>60)</sup>.

어거스틴은 인간은 섭리에 종속되어 있는 동시에 또한 섭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충분히 논증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발생한다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일은 없다는 원리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61)</sup>. 이것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은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의 의지로 발생하는 것들도 운명적인 것처럼 보인다<sup>62)</sup>. 한 예로, 어떤 상인이 일단의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삼림 속에 들어갔다가 잘못하여 일행을 잃고 헤매다 마침내는 도적을 만나 살해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선견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걱정하셨던 것이다<sup>63)</sup>.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이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 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그 필연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그 자체의 특수한 성격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뼈를 좋은 실례로 들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소유하셨던 만큼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의 뼈가 부러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요19:33, 36).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상대적 필연과 절대적 필연, 마찬가지로 결과적 필연과 결과의 필연의 구별이 학파들간에 분별없이 고안된 것이 아님을 본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뼈를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셨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를 부러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 계획의 필연으로 제한하셨던 것이다<sup>64)</sup>.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이 말씀은,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며 모든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항상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삶의 한계를 정해 주셨으며 동시에 그것들 잘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sup>65)</sup>.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발생되며 무엇 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물의 근본 원인으로 바라보며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sup>66)</sup>.

---

60) Inst(1559). I. 16. 8.

61) Ibid.

62) Inst(1559). I. 16. 9.

63) Ibid.

64) Ibid.

65) Inst(1559). I. 17. 4.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일에 대한 결정적 원리로 삼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선택자에게서 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기자를 복종케 하기도 한다라고<sup>67)</sup>.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16:4). 보라, 만사의 처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구원과 사람의 결정도 그의 권한내에 있으므로, 그는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죽기로 결정되어 출생하여서, 그 멸망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도록 정하셨다. 만일 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섭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필연성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일부를 말하는 것이요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들을 예견하시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생기도록 자신이 결정하셨기 때문이므로, 그들이 예지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만사는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으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sup>68)</sup>.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에 모순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며 원하는 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하나이며 단일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실 바를 원하기도 하시고 원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sup>69)</sup>

## B.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판)의 구조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 최종판, 독자에게 알리는 글에서 자신이 가장 만족한 순서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sup>70)</sup>. 그 구조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66) Inst(1559). I. 17. 6.

67) Inst(1559). I. 18. 2.

68) Inst(1559). III. 23. 6.

69) Inst(1559). I. 18. 3.

70) “독자에게 드리는 글 ……… 내가 이 일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 나오게 된 이 순서대로 배열되기까지 나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난 내가 증보하여 내어놓는 것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기꺼이 인정해 주리라 믿는 바이다.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정열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천사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 본서에서 내가 목적인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말씀 안에서 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의 개요를 개진하였고

제 1 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Lib. I. De Cognitione Dei Creatoris*)

제 2 권 처음에는 율법 아래 조상들에게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Lib. II. De Cognitione Dei Redemptoris in Christo, quae Patribus sub Lege primum, deinde et nobis in Evangelio patefacta est.*)

제 3 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 (*Lib. III. De Modo Percipiendae Christi Gratiae et qui inde fructus nobis proveniant, et qui effectus consequantur.*)

제 4 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Lib. IV. De Externis Mediis vel Adminiculis quibus Deus in Christi societatem nos invitat et in ea retinet*)

칼빈은 이제 최종판에서 이전판에서보다 더욱 세분하여 다루므로 그 분량이 상당히 증보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는 초판(1536년)이나 1545년/1554년판에서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등의 구조를 가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특히 예를 들면, 제1권 13장의 제목을 보면, “성경에서 창조 자체로부터 자체 안에 세 위격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한 본체를 알려 준다는 것(*Unicam Dei essentiam ab ipsa creatione tradi in Scripturis, quae tres in se personas continet.*)”이다. 칼빈은 아마 사도신경의 첫 부분의 주석 안에 종속적으로 전통적 삼위일체론을 논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창조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조로 바꾸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삼위일체의 내용(*una Dei essentia, ……quae tres in se personas continet, ‘그 자체 안에서 세 위격들을 포함하는’*)을 포함하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제 2 권은 기독교론이고, 제 3 권은 성령론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얻는) 양식(modus)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이해의 근거로서 상기의 제목에서 ‘창조 자체로부터’(시작하여) 하나님의 한 본체를 알려준다는 표현에 있는데, 그 표현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이 그의 모든 사역에서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71)</sup>.

이런 방식으로 또한 예정론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정론이 제 3 권 21장에서 24장까지 다루어지는 것을 구원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

또 그러한 순서대로 그것을 배열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만 하면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성경에 포함된 내용을 어떤 목표에 귀착시켜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데 어떠한 곤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nst*(1559). I. pp. 13~ 15.

71) 김영규, *기독교 강요 강독 강의안*, 안양대 신학대학원, 1996년, p. 52.

## C. 칼빈의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 구원의 서정과 예정론의 필연적 관계

### 1. 예정의 내용으로서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이 예정이 갖는 성격은 칼빈에게서 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구원에 근거가 전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를 영원 전에 예정하셔서, 그 자신의 뜻에 의해 미리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다<sup>72)</sup>. 이때 우리 택자들은 구원에 대한 바른 확신을 갖게 된다.<sup>73)</sup> 이렇게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가 가진 무엇을 근거로 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신7:7).<sup>74)</sup> 또한 예정은 구원의 서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의 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며 그 대상이 택자라는 것이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때 바른 확신을 가지며, 그 합당한 내용을 깊이 아는 이가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sup>75)</sup>

“하나님께서서는 선택을 자신 안에 감추어두시지만, 부르심으로 그 선택을 나타내실 때에는 무차별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롬8:29).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롬8:30). 이것은 그들을 후에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었다.”<sup>76)</sup> 그와 같이 성경은, 부르심과 선택이 연결될 때, 이 일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공효 이외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충분히 보여준다.<sup>77)</sup>

72) Inst(1559). III. 24. 17.

73) Inst(1559). III. 21. 1.

74) Inst(1559). III. 22. 2.

75) Inst(1559). III. 24. 4. “Nam quemadmodum in exitialem abyssum se ingurgiant qui, ut de sua elezione fiant certiores, aeternum Dei consilium sine verbo percontantur, ita qui recte atque ordine ipsam investigant, qualiter in verbo continetur, eximium inde referunt consolationis fructum. Sit igitur haec nobis inquirendi via, ut exordium sumamus a Dei vocatione et in ipsam desinamus.”

76) Inst(1559). III. 24. 1. “Atqui non absque delectu electionem, quam in se ipso alioqui absconditam habet, vocatione demum sua Deus manifestat quam ideo appellare proprie licet eius testificationem. Nam quos praescivit, eos et praefinivit, eos et vocavit; quos vocavit, eos et iustificavit, ut olim glorificet(Rom. 8, 29).”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30).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만 자신의 생명 안에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정하신 순서에 따라 그들 안에서 자신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sup>78)</sup>.

구원의 전체를 하나님의 긍휼에 돌린다. 또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부르심만을 끊임없이 선포하지 않는가?<sup>79)</sup>

## 2. 예정의 결과(열매)로서 구원의 서정문제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일 뿐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한 조명이다. 우리는 예언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를 알 수 있다(사65:1).<sup>80)</sup> 그와 같이 부르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만이 주관하고 있는데 부르심이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부정한다면, 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가?<sup>81)</sup> 선택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sup>82)</sup>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動力因)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질료인(質料因)은 아들이신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形相因)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며, 목적인(目的因)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원인은 주께서 행위를 종속적인 원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막지 않는다.<sup>83)</sup>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영생을 상속하도록 자비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만드실 때에, 그의 일반적 경륜을 따라 선행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신다. 경륜의 순서에서 앞서는 것을 뒤따르는 것의 원인이라고 부르신다.<sup>84)</sup> 그래서 간혹 영생이 행위에서 나

77) Inst(1559). III. 24. 1.

78) Inst(1559). III. 18. 1.

79) Ibid.

80) Inst(1559). III. 24. 2.

81) Inst(1559). III. 24. 2. “...Qua fonte gratuitam esse vocationem negemus, in qua ad ultimam usque partem sola regnat electio?”

82) Inst(1559). III. 24. 5.

83) Inst(1559). III. 14. 21. , “Quod autem praeterea bona fidelium opera scriptura causas esse ostendit cur illis Dominus beneficiat, id sic intelligendum est, ut stet inconcussum quod ab te posuimus, effectum nostrae salutis in Dei patris dilectione situm esse, materiam in filii obedientia, instrumentum in spiritus illuminatione, hoc est fide; finem esse tantum Dei benignitatis gloriam. Istis nihil obstat quominus opera Dominus tanquam causas inferiores amplectatur.

84) Inst(1559). III. 14. 21. “Sed unde id? nempe quos sua misericordia aeternae vitae haereditati destinavit, eos ordinaria sua dispensatione per bona opera inducit in eius

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생이 행위의 결과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롬8:30), 앞에 온 은혜를 다음에 온 은혜의 원인으로 만드신다<sup>85)</sup>. 그러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에는, 행위에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sup>86)</sup>. 사도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 영생이니라”고(롬 6:23) 가르치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즉, 죽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sola Dei misericordia*)에 달렸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들은 원인보다도 시간적 전후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올리심으로써 앞에 있는 은혜를, 다음에 따르는 은혜를 첨가하는 원인으로 삼아 그의 종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너그러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사의 근원이며 시작인 값없이 주신 그의 선택을 항상 주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선물을 사랑하시지만, 그 선물들의 근원은 선택에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값없이 우리를 용납해주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베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들을 저 제일 원인에 종속시키며, 그 선물들이 선택의 가치를 결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sup>87)</sup>

견인(堅韌)을 첨가하지 않으면 부르심과 믿음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또 견인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런 불안에서 해방시키셨다. 확실히 미래에 적용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6:37).<sup>88)</sup>

그의(바울: 롬8:38) 자라는 견인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확실히 이 생

possessionem. Quod in ordine dispensationis praecedit, posterioris causam nominat.”

85) Ibid., “Hac ratione ab operibus interdum vitam aeternam deducit; non quod illis referenda sit accepta; sed quia quos elegit, iustificat, ut demum glorificet(Rom 8, 30), priorem gratiam, quae gradus est ad sequentem, causam quodammodo facit.

86) Inst(1559). III. 14. 21. “At quoties assignanda est vera causa, non da opera iubet confugere, sed in sola misericordiae cogitatione nos retinet.”

87) Inst(1559). III. 14. 21. “Denique istis loquutionibus series magis notatur quam causa: quid Deus gratias Gratiis cumulando, es prioribus causam sumit secundas addendi, ne quid ad locupletandos servos suos omittat; atque ita liberalitatem suam prosequitur, ut tamen gratuitam electionem, quae fons et initium est, respicere nos semper velit. Quanquam enim quae nobis quotidie confert dona, quatenus ex illo fonte prodeunt, amat, nostrum tamen est, gratuitam illam acceptionem tenere, quae sola fulcire animas nostras potest; quae vero spiritus sui dona deinde largitur, ita subnectere primae causae, ut ei nihil derogent.

88) Inst(1559). III. 24. 6.



각을 모든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한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생각을 말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1:6)<sup>89)</sup>.

이와 같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앞선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열매인 것이다.

### 3. 그리스도의 성취와 적용문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최종판:1559년) II권의 제목을 보면, “처음에는 율법 아래 조상들에게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던 그리스도 안에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DE COGNITIONE DEI REDEMPTORIS IN CHRISTO, QUAE PATRIBUS SUB LEGE PRIMUM, DEINDE ET NOBIS IN EVANGELIO PATETACTA EST.*)” 라고 하였다. 그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구속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각 장의 제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자유의지를 논박한다. 그 다음에 제6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 제7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고 함으로 택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전체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 제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하여, 그 후에 마지막 제17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고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는 우리에게, 즉 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취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계21:27참조)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sup>90)</sup>

89) Ibid.

90) Inst(1559). III. 24. 5. ; 참조, “어떠한 종류의 인간의 행위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전혀 그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저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드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 자신의 의로 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값없으신 그홀로 말미암는다”, John Calvin,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풍부하게 되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풍성한 것을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 주시기 위해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하며(요3:34), 이는 우리가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요1:16).”<sup>91)</sup>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를 없애 버리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없애며,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호의와 친절을 품으시게 만드셨느냐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의 복종 생활 전체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sup>92)</sup>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드려 속죄 제물로서 죽으시게 한 것은 그의 희생으로 모든 배상을 치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말뜻이 여기 있다.”<sup>93)</sup>

참으로 어거스틴의 지당한 말과 같이 “예정과 은총의 가장 밝은 빛은 인간으로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선행하는 행위나 믿음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인간성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sup>94)</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는 서정을 포함한다.

#### 4. 성령의 유효적 적용과 구원의 서정

관하여», 김동현역(서울: 솔로몬, 1994년), p. 69.

91) Inst(1559). II. 15. 5.

92) Inst(1559). II. 16. 5.

93) Inst(1559). II. 16. 6.; 칼빈은 속죄의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라는 말을 한다. 그 우리는 택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칼빈의 요한 일서 2장 2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을 확신하는 모든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곧, 모든 세상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모든 유기자들과 심지어는 사단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 가능성을 확대하는 이유로 삼는 환상적인 우리들의 허황한 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런 무도한 자들의 망발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불합리성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한 충분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유효하다고 말한다.” ; 또한 이사야 52장 13~15절 설교에서도 나타난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이에 선지자는 전 교회(택자의 모임)가 그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 라면, 그의 인격에 대해 설명한 것들 역시 그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 공통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할 것이다.”, John Calvin, 「칼빈의 이사야 설교」, 김동현역(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출판국, 1992), p.37.

94) Inst(1559). II. 17. 1.; 참조, “이 중(사42:1)이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그가 우리의 속성을 입으시어 겸손이라는 말보다도 자신을 더 낮춤으로써 온갖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의(義)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John Calvin, 「칼빈의 이사야 설교」, op.cit., pp.36~37.

기독교강요(최종판: 1559년) 제II권에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하여 이제 제III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란 제목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제1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고, 제2장에서부터 제10장까지는 믿음과 중생 그리고 회개를 말하며, 제11장부터 제18장까지는 믿음에 의한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대하여, 제19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20장은 기도, 제21장부터 제24장까지는 예정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5장 최후의 부활을 다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한 것이 택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며, 그러한 유익과 효력으로서 믿음, 중생, 칭의가 나타나게 되는 가를 밝힌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으로 성령론에 대한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또 다른 종류의 소명은 중생의 영이 동반한다(딤후3:5참조). 중생의 영은 장차 있을 기업의 보증이며 확인하는 인(印)인데(엡1:13-14), 그는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인을 우리의 마음속에 쳐주신다(고후1:22).”<sup>95)</sup>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영원한 계획으로 그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과 같이...”<sup>96)</sup> “모든 사람이 경건의 길에서 전진하려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sup>97)</sup>

회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박한 마음을 주시되 소수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겔36:26)<sup>98)</sup>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히 회개를 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은 은밀한 활동

95) Inst(1559). III. 24. 8. ; 참조, 「즈네브교회의 요리문답(1541/42)」, “제 91 문 아이 :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의 능력을(롬5:5)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조명하시어 우리로 당신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날인하시고 각인 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엡1:13).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딤후3:5).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재화와 은사들을 얻게 됩니다(Intelligo spiritum Dei, dum in cordibus nostris habitat, efficere ut Christi virtutem sentiamus. Nam ut Christi beneficia mente concipiamus, hoc fit spiritus sancti illuminatione: eius persuasione fit, ut cordibus nostris obsignentur. Denique, solus ipse dat illis in nobis locum. Pegenerat nos, facitque ut simus novae creaturae. Proinde, quaecunque nobis offeruntur in Christo dona, ea spiritus virtute recipimus.). , Jean Calvin, 「갈방의 요리문답」, op.cit., pp. 127~128.

96) Inst(1559). III. 24. 12.

97) Inst(1559). III. 24. 13

98) Inst(1559). III. 24. 16.

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예레미야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렘31:18-19)<sup>99)</sup>.

하나님께서 조명해주신 사람들만이 그의 자비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조명하신다.<sup>100)</sup>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복음을 통해서 이 두 종류 사람들에게 모두 제시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믿음 즉, 하나님의 조명이다. 그 결과 경건한 사람은 복음의 역사를 느끼고, 불경건한 사람은 복음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 조명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척도가 된다.<sup>101)</sup>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라는 것을 그의 예언 속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꺾전을 울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못되며 들음과 동시에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sup>102)</sup>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라는 예언 속에서 선지자는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한총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 하나님께서 감화와 신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에게로 이끌리어 다가가 들은 설교를 통해 감화되는 것이다.”<sup>103)</sup>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믿음을 얻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서 오

---

99) Ibid.

100) Inst(1559). III. 24. 17. ; 참조, “제 113문 아이 : (신앙이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 물론 우리의 이해력은 매우 약하여 신앙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신앙 혹은 왜곡된 신앙으로, 즉 우리 자신이나 피조물들에 대한 그릇된 신뢰에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날인해 주시고 각인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확신 속에 굳게 세워 주십니다(Nempe rudior est mens nostra, quam ut capere spiritualem Dei sapientiam queat, quae nobis per fidem revelatur: et corda nostra propensiora sunt, vel ad diffidentiam, vel ad perversam nostri et creaturarum sonfidentiam, quam ut in Deo suoapte motu acquiescant. Verum spirtus sanctus illuminatione sua capaces nos intelligendi facit ea, quae captum nostrum longe alioqui excederent: nosque ad certam persuasionem format, salutis promissiones cordibus nostris obsignando.). , Jean Calvin, 「갈뎡의 요리문답」, op.cit., pp. 134~135.

101) Inst(1559). III. 24. 17. “Ergo quumutrisque Dei misericordia per evangelium offeratur, fides est, hoc est Dei illuminatio, quae inter pios et impios distnuit: ut evangelii efficaciam illi sentiant, hi vero nullum inde fructum consequantur. Illuminatio quoque ipsa electionem Dei adernam pro regula habet.”

102) John Calvin, 「칼빈의 이사야 설교」, op.cit., p. 47.

103) Ibid., p. 52.

로지 하나님께 더욱 연합하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임을 깨닫자.”<sup>104)</sup>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한다. 첫째로, 그에게 무슨 선행이 있다면, 그것 안에서 자기 것은 조금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런 행위도 무수한 죄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양심은 확신보다 두려움과 당황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행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은혜만을 보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위는 어떤 원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은 도처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동력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물론 질료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얻으셨다. 형상인은 믿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 목적인에 관해서는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었으며, 믿음으로 받게 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엡 1:13-14)<sup>105)</sup>.

## IV장 결론

루터주의, 알미니안처럼 역사적으로 예정론을 모호하게하는 자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예지를 강조했다. 소위 그들의 의도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시대라면 그 같은 시도조차도 예정론을 모호하게하는 시도들이라고 한다. 그렇게 모호하는 성격은 결국 예정론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관련해서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에서는 무신론의 배경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일부만을 드러내고 다른 성품은 어디에 가두어 두고 만다고 칼빈은 비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무신론이라고 했다.

예정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찾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104) Ibid., p. 55.

105) Inst(1559). III. 14. 17.; 참조, 데살로니가 후서 주석, “주 예수의 이름이 ..... 영광을 얻으시고. 그는 우리의 전체 생활의 주된 목적을 우리에게 지적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전념하게 하고 있다. ...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일이다.”, p. 490.

론적이 아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에 그것에 대한 미묘한 선을 축소시키거나, 모호하게 하려는 것을 초점을 막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어떻게 모호하게 한다. 무엇을 모호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정론을 아는 것은 삶의 방향이 인간론에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성정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빙크가 말하였듯이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의 깊은 차이이다(106).

칼빈의 예정론은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자유의지(뜻)에만 기원하도록 하신 원리인 은혜이다. 칼빈은 이것을 강조했고, 또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서만 나오도록 하신 것이 자비, 은혜 그 형태가 예정론이다(107). 예정론을 말하는 핵심이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그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전부 강조했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싸웠다. 또한 하나님의 의논(예정)과 구원의 성취와 유효하는 선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잘 말하여 주었다.

결국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을 바르게 아는 것은 성경을 가장 좋은 내용으로 아는 것이다. 그것은 예정론이라는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며, 그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시며, 또한 그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얼마나 무한하시며, 그의 전능하심이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성격으로, 또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이며, 생애 있어서 그런 지식이 있는 자는 늘 그분 앞에 있는 자로서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

106) H. Bavinck, 「개혁주의 교의학 I」, 김영규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년), p. 208.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신론적으로 생각하고, 반면 루터주의 그리스도인은 인간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개혁주의자는 역사 안에 서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념 즉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에까지 끌어 올라간다는 것이요, 루터주의자는 그 입장들을 구원사의 중심에서 취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성정에까지 꿰뚫고 들어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의 경우 선택이 교회의 핵심(책 ecclesiae)이고, 루터주의자들의 경우 칭의가 교회의 향존적이고 항상 출발하는 조항(articulus stantis et cadentis ecclesiae)이다.

전자의 경우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이르시느냐에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후자의 경우 어떻게 인간이 축복에 이르느냐에 있다. 전자의 경우 이교도주의, 우상에 반대하는 싸움이고, 후자의 경우 유대주의, 행위거룩(de wekheiligheid)에 반대하는 싸움이다. 개혁주의자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에 되돌리고 물(物)의 원인(διοτι)을 추적하며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되게 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반면에, 루터주의자는 현상(οτι)에 만족하고 그가 신앙을 통하여 부여받은 축복에 안락하는 자들이다. 원리에 있어서 이런 차이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원죄, 그리스도의 인격, 구원의 순서, 성례, 교회정치, 윤리 등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교의적 논쟁이 쉽게 설명된다.”

107) Inst(1559). III. 24. 17.

이 세상의 어떠한 내용이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손상할 수 없으며, 생에서는 나그네 같으며, 가장 힘없는 자 같으나, 가장 부요한 자요.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라틴어)

Calvinus, John. Opera quae supersunt omnia(Corpus reformationum 29-87), 3d., G.baun/ E.Cunitz/ E.Reuss, Brunsvigae & Berolinae. 1863-1900(CO).

(번역본)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 신복윤 · 이종성 · 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1559년판)」, 생명의 말씀사, 1994.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역, 「기독교 강요(1536년판)」,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vol. I,II.

----- .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동현역, 솔로몬, 1994.

----- . 「사둘레토에의 답신 · 성만찬 소고」, 박건택편역, 바실래, 1989.

----- . 「갈뱅의 요리문답」, 한인수역, 경건, 1995.

----- . 「존 ·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 김기수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91.

----- . 「칼빈의 경건」, 이형기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 「목회서신 강해」, 김동현역, 지평서원, 1996.

----- . 「육과 하나님」, 서문 강역, 지평서원, 1996.

----- . 「에베소서 설교 상(上)」, 김동현역, 솔로몬, 1995.

----- . 「칼빈의 이사야 설교」, 김동현역, 기독교연합신문사 출판국, 1992.

----- . 「칼빈의 십계명 설교」, 박희석역, 성광문화사, 1991.

----- . 「칼빈주석」,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성서교재간행사, 1995.

### <2차 자료>

Augustinus. 「삼위일체론」, 김종흡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 「은혜론과 신앙론」, 김종흡역, 생명의 말씀사, 1997.

Bavinck, Herman. 「개혁주의 교의학 I」, 김영규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Beza, Theodore.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김동현역, 목회자료사, 1999.

Holtrop, Philip C.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 · 이길상 공역,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1997.

Klooster, Fed H. 「칼빈의 예정론」, 신복윤역, 성광문화사, 1994.

Leith, John H. 「칼빈의 삶의 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Machen, Gresham. 「기독교 인간관」, 채경희역. 나침반, 1995.

McNeill, John T.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양낙홍 공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Ness, Christopher. 「칼빈주의자가 본 알미니안 주의」, 강귀봉역, 생명의 말씀사, 1994.

Peterson, Robert A. 「칼빈의 구원의 도리」, 황영철역, 반석문화사, 1994.

Philip Schaff. 「신조학」, 박일민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Stickelberger, Emanuel. 「하나님의 사람 칼빈」, 박종숙·이은재 공역, 나단, 1995.

Sproul, R. C. 「알기쉬운 예정론」, 정중은역, 생명의 말씀사, 1994.

Warfield, B. B. 「구원론」, 지상우역, 엠마오, 1989.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역, 품만 출판사, 1995.

Wallace, Ronald S.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나용화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강경림. 「칼빈과 니고데모주의」,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최병섭 엮음.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신성, 1997.